

The Reunified Korean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6. 3 통권 제15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統一經濟

3

1996

제 15호

권두언
스탈린주의와 북한의 체제 • 양호민 2

특별대담
北日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전망 • 고마끼 데루오(小牧 輝夫) 4

초 점1
대북 식량 지원과 한·미·일 공조 • 백진현 20

초 점2
쌀과 경수로, 그 올바른 대응 • 김영록 24

시사논단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 김시중 38

북한의 환경 문제와 남북한 교류협력 전망 • 손기웅 49

통일 이후의 경제 체제 • 정중재 62

통일 비용과 내생적 경제 성장 • 김준영 73

통일다리
북한의 살림집 - 낡은집과 새집의 병존 • 주강현 83

북한경제
북한의 섬유 산업 • 이효근 89

북한동향분석
북한 엘리트의 탈출 증가와 개방 욕구 • 도준호 101

참관기
니이가타 동북아 경제회의 '96 참관기 • 김정균 105

서 평
김학준 「북한 50년사」 • 김연라 108

자 료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구체적 방안 • 김응렬 111

두만강지역개발의 실천적 방도 • 황정남 114

나진 ·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와 중계 수송업 • 리기만 119

통 권 제 15호
 등록번호 라-6925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6년 3월 8일
 편집 및 발행인 김중웅
 편집위원 정순원(위원장)
 김홍호 백학순
 전홍택 남궁영
 김정균 김 욱
 이창규 정오영
 편집주간 심재철 이태섭
 발행처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전화 (02) 737-4005
 F A X (02) 730-1770
 인 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 638-0555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스탈린주의와 북한의 체제

양호민

한림대 객원교수

1인 히 사람들은 북한의 정치 체제를 ‘스탈린주의’라고 규정해왔다. 어떤 외국인들은 ‘유교공산주의’라고도 단정한다. 이런 주장들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면 스탈린주의란 무엇인가. 스탈린주의란 한마디로 스탈린의 혁명관, 그의 사회주의 건설 방법, 그의 통치 방식, 그가 만들어 놓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이데올로기 체계 모두를 포함하는 종합적 개념이다. 그는 1925년에서 1928년 사이에 3차에 걸쳐 당내 반대파들을 모두 소탕하고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한 후, 1928년 10월에는 제1차 5개년계획을 채택하고, ‘1국사회주의’ 건설에 착수했다. 제1차 5개년계획은 강력한 국가 권력에 의하여 후진국에서 위로부터의 산업혁명을 이룩하려는 세계 사상 최초의 시도였다.

그의 방법은 중공업우선주의와 농업의 급속한 집단화 정책으로 자본의 始原的 蓄積을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이에 제2차 5개년계획(1933.1~1937.12)의 시기는 중공업우선주의를 지속하되 인민들의 소비 생활에다 배료를 늘리는 한편, 농업의 집단화를 완성한 ‘사회주의의 확립기’였다. 그의 기본

적 목표는 중공업의 우선 건설로서 군비 생산을 증가시켜 ‘제국주의에 포위된’ 소비에트 정부를 방어한다는 데다 두고 있다.

소비에트식 공업화가 영·불·미·일 등 자본주의 국가의 그것과 다른 것은 ① 서구가 반세기에 걸쳐 이룩한 공업화를 10년에 수행한 정도로 템포가 빨랐다는 점, ② 수탈한 식민지를 가지지 못했고 외자의 도입도 없이 자체의 힘으로 수행했다는 점, ③ 토지·공장·은행·무역이 모두 국유화되어 사적 이윤의 유인이 없는 조건에서 국가의 총체적 계획에 의하여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소비에트식 ‘계획화’는 당시 반공적인 히틀러의 독일(4개년계획), 터키(5개년계획), 중화민국(5개년계획)까지 모방했고 대전후에는 인도, 버마, 대한민국 등 거의 모든 신생국들이 후진성 극복의 방법으로 각자의 연차적인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실시했던 것이다. 구소련의 공업화 정책에서 나타난 스탈린주의의 기본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즉, ① 급속한 자본 축적의 필요에 의하여 인민 대중의 소비 생활을 하위에 놓았다는 것, ② 당관료(엘리트층)에 의하여 산업을 관리케

했다는 것, ③ 노동자의 법적 권리(파업권)가 박탈되었다는 것, ④ 농업을 무자비하게 강제적으로 집단화했다는 것, ⑤ 사회가 특권층(지배층)과 하위 계층(피지배층)으로 분화되어 사회주의적 평등 사상이 공론화되었다는 것, ⑥ 이에 대한 당내외의 불만과 반항을 진압하기 위하여 비밀경찰제도에 기초한 전체주의적 독재 권력이 계속 강화되었다는 것, ⑦ 1인 전체 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개인 숭배작품이 조장되고 제도화되었다는 것 등이다.

후전 후 김일성이 강행한 일련의 연차 경제 건설 계획을 추적할 때, 북한의 체제에는 스탈린주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원판과 복사판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공산주의는 바로 스탈린주의며 김일성은 전형적인 스탈린주의자였다. 1933년경부터 구소련은 스탈린주의 제2기에 들어섰다. 이때의 특징은 개인 숭배의 무한한 상승 작용에 의하여 스탈린은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신의 지위에 올랐다. 그리하여 그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방법에서는 물론 철학, 사회과학, 군사학, 자연과학, 문학, 심지어는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진리의 절대 기준으로 되었고, 그의 능력을 완전화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리화, 진리의 허위화, 역사의 위조와 변조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김일성-김정일의 지배 체제의 특징과 비교하여 무엇이 다른가. 스탈린 개인 숭배 풍조는 그의 개인적 폭정 속에서 조장되어갔다. 스탈린주의 제2기의 또하나의 특징은 그의 광란적

우상화와 더불어 공포 정치, 대량 숙청, 강제 노동수용소, 정신병동, 테러리즘, 물 샬 틈 없는 비밀경찰의 조직망이며 이것이 후일 스탈린주의의 표상으로 되었던 것이다.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전체주의 체제는 이상과 같은 악혹 면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다.

김일성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스탈린의 '소비에트 애국주의'의 사관이었고, 김일성의 제국주의 이론은 스탈린의 그것의 복창이었으며 지금도 다를 바가 없다. 스탈린이 사망한 후 구소련은 그를 신의 지위에서 악마의 지위로 끌어내렸고 세계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를 규탄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단 한마디의 스탈린 비판이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느닷없이 그를 찬양까지 하고 나섰다. 그러나 노년의 김일성은 스탈린식 통치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것을 간취하고 70년대만 해도 그가 '봉건적 유교사상'이라고 비난해온 유교의 덕목들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아버이 수령'이란 경어는 벌써부터 유교적 가부장주의를 함축하고 있었지만, 곧이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이니, '충효'니 하는 말이 저리낌없이 사용되어왔고 근자에는 김정일의 '인덕' 정치가 예찬되고 있다. 김일성의 증조부·조부·부친·모친은 물론 그밖의 혈육들까지 가계를 聖體化하면서 봉건적 부자세습제를 절대화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의 현 정치 체제는 '영생 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조성을 창조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유교 사상으로 보충된 스탈린주의라고 단언해도 무방할 것이다.